

KCC, 불에 강한 스펀지 개발

KCC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친환경 실리콘 스펀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출시했다고 밝혔다.

KCC가 이번에 개발한 실리콘 스펀지는 기존 스펀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유기계 발포제 대신 수분을 활용해 발포 과정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전혀 없고 독성 물질 또한 배출되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스펀지는 유기계 고무 소재로써 발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인 냄새,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방출되어 인체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었다.

특히 스펀지 고무 소재의 대다수가 내열성 및



KCC
가

내수성이 약해 햇볕에 소독을 하거나 열탕 소독 또는 세정이 불가능해 위생성이 떨어졌다.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고에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요인 중 하나도 침대 매트리스 등 가연성 고무 물질들이 유독가스 등을 방출해 있다.

KCC가 개발한 실리콘 스펀지는 화재시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분기 자재수급 안정세...단가협상 변수

2분기 건설자재 수급이 안정세를 지속했다.

건설자재직협회가 취합한 '2분기 건설자재 수급동향'을 보면 시멘트는 법정관리로 인한 동양시멘트의 생산중단 등 여파로 출하량(1362만톤)이 전년동기보다 2.4% 줄었지만 재고량(443만2000톤)이 3.4% 늘어 안정적이었다.

위례·미사 신도시 등 대형현장과 관수물량 증가세에 힘입어 5월말 기준 레미콘 출하량(234만8028m³)도 소폭 늘었고, 성수기에도 생산판매량이 줄어든 철근 역시 적정수준(25만톤)을 상회하는 38만여톤의 재고 속에 안정세를 보였다. 골재수요는 50.9% 늘었지만 이를 6.5% 상회하는 공급능력(허가량 기준 5686만 5000m³) 덕분에 수급이 원활했다.